

US여자오픈 우승 박성현, 세계랭킹 첫 '톱5' 진입

美진출 14개 대회만에 US여자오픈 우승...한번에 6계단 수직 상승
유소연, 4주 연속 1위...2위 쭈타누간 3위 렉시 톰슨 4위 리디아 고

미국 무대 진출 이후 첫 우승을 차지한 '슈퍼투키' 박성현(24·KEB하나은행)이 여자골프 세계랭킹에서도 처음으로 '톱5'에 진입했다.
17일 발표된 여자골프 세계랭킹에 따르면 박성현은 7.17포인트로 지난주 11위에서 6계단 수직 상승하며 5위를 차지했다.
박성현은 이날 끝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3번째 메이저대회인 'US여자오픈'에서 우승하며 미국 진출 후 14개 대회만에 첫 우승의 감격을 누렸다.
올해 처음 발표된 세계랭킹에서 정확히 10위로 출발했던 박성현은 그 동안 8위가 자신의 최고 순위였다. LPGA 투어 첫 우승을 메이저

타이틀로 장식하며 자신의 최고인 5위를 기록하게 됐다.
US여자오픈에서 공동 3위를 한 유소연(27·메디힐 9.33)이 4주 연속 1위 자리를 지킨 가운데 2~4위는 에리아 쭈타누간(태국), 렉시 톰슨(미국), 리디아 고(뉴질랜드)로 변동이 없다.
박성현으로 인해 전인지(23)가 1계단 내려간 6위를 했고 US여자오픈에서 사흘 연속 선두를 달리다 뒷심 부족으로 공동 5위에 그쳤던 평상근(중국)은 7위로 내려앉았다.
US여자오픈에서 13년 만에 첫 탈락을 경험한 박인비(29·KB금융그룹)은 3계단 추락한 10위다. 양희영(28·PNS)이 9위를 지키며 한국 선수는 '톱10'에 5명이 이름을

올렸다.
박성현에 이어 깜짝 준우승을 차지하며 아마추어 돌풍을 일으켰던 최혜진(18·화산여고)은 무려 38계단 상승하며 24위까지 순위가 급등했다. 아마추어 선수로는 당연히 최고다.
공동 5위를 하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의 자존심을 지켰던 이정은(21·토니토리)도 40위에서 32위로 뛰어 올랐다.
세계랭킹 50위 이내 한국 선수는 절반에 1명 모자란 24명이 포진하며 여자골프 최강국다운 면모를 과시했다.
한국에 내셔널 타이틀을 내준 미국은 세계랭킹에서도 50위 이내는 11명에 불과했다.



은퇴 계획 미룬 빅토르 안 "최대한 오래 빙판 누빌 것"

심경변화 가장 큰 이유로 '즐거움' 꼽아



빅토르 안(왼쪽)을 비롯한 러시아 쇼트트랙 대표팀이 17일 오후 서울 송파구 한국체육대학교에서 전지훈련을 하고 있다.

평창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빅토르 안(32·한국명 안현수)이 계획을 틀었다.
그의 새로운 목표는 '평창에서의 화려한 피날레'가 아닌 '최대한 오래 빙판 위를 누비는 것'이다.
빅토르 안이 속한 러시아 쇼트트랙 대표팀은 17일 서울 송파구 한국체육대학교 실내빙상장에서 공개 훈련을 실시했다.
2011년 러시아 귀화를 택하기 전까지 한국 쇼트트랙의 대두보였던 빅토르 안은 러시아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모교를 찾았다. 빅토르 안은 미리 정해진 상황에 따라 스케이트를 이어가며 몸 상태를 점검했다.
2시간 가량 지속된 훈련을 마친 빅토르 안은 모처럼 국내 취재진들과 마주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둔 소감과 이후 행보에 대해 가감 없이 전했다.
어느덧 30대 중반이 된 만큼 은퇴에 대한 이야기도 빠지지 않았다.

빅토르 안은 그동안 여러 차례 인터뷰를 통해 "평창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시 만난 빅토르 안은 평창이 마지막 무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심경변화의 가장 큰 이유로 "즐거움"을 꼽았다.
"계속 세계 정상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보다는 즐거움이다. 지금이 더 즐겁다"고 운을 뗀 빅토르 안은 "어렸을 때는 시기는 대로 했던 적이 많았다. 분위기 자체가 강압적이었던 것 같다. 그런데 지금은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분위기다. 몸 관리만 잘하면 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금까지 해왔던 운동을 그만두겠다는 생각을 쉽게 못 했다. 인젠가는 그만둬야 하지만 그 시기를 정하지는 못했다"면서 평창 대회가 끝나고 계속 선수 생활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성적에 대한 부담감에서 벗어난

것은 새로운 결심을 부추기는 계기가 됐다.
"러시아에서) 나에게 큰 기대를 안 하는 것 같다"고 호탕하게 웃은 빅토르 안은 "러시아에서 어느 정도 성적을 냈을 때 (빙상연맹) 회장님께서 '이제 성적에 대한 부담은 갖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후 마음이 편해졌다. 초반에 잘 못했을 때도 많이 기다려주신 분"이라고 고마워했다.
빅토르 안은 자신의 선수 생활을 두고 "비라톤으로 치면 40km 지점"이라고 표현했다. "8살 때부터 했으니 24~25년 정도 됐다. 돌아보면 징그럽다. 다시는 못 할 것 같다"고 손사래를 쳤다.
지금 생활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알기에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고 싶다는 것이 빅토르 안의 생각이다. 빅토르 안은 "은퇴한 선수들이 그만둘 때쯤 아쉬움과 후회를 하는 것이 이런 것 때문인 것 같다. 최대한 열심히 즐겁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선수 생활은 언젠가는 막을 내린다. 빅토르 안에게 평창이 마지막에 가까운 지점인 것은 분명하다. 서서히 그 이후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서있는 빅토르 안은 "내가 제일 잘 하는 것이 이것(쇼트트랙)이지만 이 생활을 또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강해 고민이 많다"고 털어놨다.
은퇴 후 러시아 생활을 지속할 것이라는 물음에 빅토르 안은 "그런 것들도 고민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그는 "가족을 보려는 오래 있을 것 같진 않지만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아내가 하고 싶은 일이 많은 텐데 나 때문에 러시아로 와서 미안한 마음도 있다"면서 여러 가능성을 열어놨다.

뉴시스

이청용, 또 부상...대표팀 소집 '빨간불'

크리스탈 팰리스 포터 명단서 제외...최종예선 출전 불투명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크리스탈 팰리스 소속의 국가대표 공격수 이청용이 또 다시 부상으로 쓰러졌다.
영국 매체 크로이던 어드버타저는 18일(한국시간) 이청용이 부상으로 팀의 아시아 투어 명단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이청용은 또 한 명의 부상자인 제임스 맥아더와 영국에 남아 치료를 이어나갈 계획이

다.
정확한 부상 부위와 상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차기 시즌 준비에 차질이 생긴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지난해 EPL에서 많은 출전 기회를 얻지 못한 이청용은 아시아 투어를 통해 프랑크 데 부어 새 감독의 눈도장을 받았다는 계획이었지만 부상에 발목을 잡혔다.
이청용은 다음달 31일과 9월5일



엘리는 이란 우즈베키스탄과의 2018 러시아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출전도 불투명해졌다.
신태용 선임 축구대표팀 감독이 "리그의 구분 없이 가장 컨디션이 좋은 선수들을 선발하겠다"고 천명한 만큼 재활이 더딜 경우 이청용의 대표팀 합류는 어려운 전망이다.

뉴시스

김연경이 본 폴란드전 "잃을 것 없다고 덤빈 것 주효"

그랑프리 세계여배구대회... "잘 준비해 우승 도전"

국제배구연맹(FIVB) 2017 그랑프리 세계여배구대회 2주차 3연전의 하이라이트는 폴란드전이었다.
한국은 5집 전승을 달리던 폴란드에 1세트를 24-28으로 내줬다. 2세트에서도 손발이 맞지 않아 12-19로 끌려갔다. 폴란드의 높이에 준비했던 플레이가 막히면서 연속 행진에 제동이 걸리는 듯했다.
하지만 선수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김연경(강하이)을 중심으로 팔팔 뭉친 한국은 2세트를 26-24로 가져오더니 세트스코어 2-1로 앞선 4세트 역시 듀스 승부 끝에 잡아내며 역전승을 이끌어냈다.
18일 대표팀과 함께 인천국제공항을 귀국한 김연경은 당시 상황에 대해 "폴란드 선수들이 생각보다 잘해 놀랐다"고 떠올렸다.
국적인 역전의 원동력은 비움의 덕이었다.
김연경은 "2세트부터는 잃을 것이 없다는 생각으로 덤볐는데 그것이 주효했다"면서 "뒤늦게 들어온 황민경이 역할을 잘해줘 흐름을

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폴란드전 승리로 2주차 3연전을 쓸어 담은 한국은 승점 16(5승1패)으로 12개팀 중 선두에 올랐다.
배우나(한국도로공사), 이소영, 강소휘(이상 GS칼텍스) 등의 이탈로 12명의 선수들로 레이스를 치르고 있지만 흥성진 감독의 용병술과 선수들의 투지가 맞물리면서 승리를 쌓아가는 중이다.
김연경은 "2주간 고생해서 선수들이 힘들어했는데 한국 온다는 생각 하나로 열심히 했다"면서 "선수들이 한국에 온 만큼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오는 21일부터 수원에서 카자흐스탄, 콜롬비아, 폴란드를 차례로 상대한다. 이번 3연전 결과에 따라 상위 3개팀에 주어지는 결선 행 진출 여부가 결정된다.
29일과 30일 체코에서 열린 결선에는 개최국 체코와 2그룹 상위 3개팀이 모여 토너먼트로 최종 순위를 가린다. 체코가 1번 시드를 배정 받았고, 나머지 3개팀은 예선라운드



성적에 따라 2~4번 시드를 차지한다.
김연경은 "하다 보니 선수들과 손발이 잘 맞아서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다. 3주차에서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면서 "수원에서 2승 정도만 하면 결선 진출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다. 결선에는 잘하는 팀들이 모일 텐데 잘 준비해서 우승하겠다"고 다짐했다.
리베로 김해란(흥국생명)은 "선수들의 부상도 많았고 일정도 쉽지 않아 걱정했는데 선수들이 이겨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면서 "한국에서의 경기를 잘 마무리 한 뒤 체코에서 꼭 우승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WC 최종예선 8월 31일

이란전, 오후 9시 키오프

8월3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이란과의 2018 러시아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A조 9차전이 오후 9시 키오프된다.
대한축구협회는 이란전 경기 시작 시간이 오후 9시로 확정됐다고 17일 밝혔다. 국내에서의 A매치는 오후 8시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대한축구협회는 이보다 1시간이나 늦은 오후 9시 경기를 택했다.
대한축구협회는 같은 조에서 경합 중인 우즈베키스탄의 중국 원정 키오프 시간이 오후 8시(한국시간 오후 9시)로 정해지자 이에 맞추기 위해 시간 변경을 추진했다.
최대한 많은 관중을 불러 모으기 위한 목적도 있다. 직장인들의 퇴근 시간을 고려하면 오후 9시 경기가 관중의 부담이 덜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우리가 이란을 꺾고 우즈베키스탄이 중국 원정에서 패하면 한국은 최소 2위를 확보, 러시아행 직행 티켓을 손에 넣을 수 있다.
하지만 만일 이 시나리오를 실현하지 못할 경우 9월5일 원정으로 치러질 우즈베키스탄과의 최종전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

추신수, 볼티모어전 침묵 김현수 결장 맞대결 불발

황재균도 무안타

텍사스 레인저스의 추신수(35)가 무안타로 침묵했다.
추신수는 18일(한국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의 오리올 파크 앳 캄덴 야전에서 열린 2017 메이저리그(MLB) 볼티모어 오리올스와의 원정경기에서 1번 지명타자로 선발출전, 3타수 무안타 1볼넷을 기록했다.
추신수의 시즌 타율은 0.244로 떨어졌다. 3경기 연속 출루 행진은 이어졌다.
볼티모어 외야수 김현수(29)의 결장으로 인해 추신수와의 맞대결도 성사되지 않았다.
경기는 텍사스가 1-3으로 패했

다. 텍사스는 2연패에 빠졌다. 반면, 볼티모어는 3연패에서 탈출했다.
황재균(30)은 샌프란시스코의 AT&T 파크에서 열린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와의 홈경기에서 1루수 겸 6번 타자로 선발출전해 3타수 무안타로 부진했다.
3경기 연속 무안타에 그친 황재균의 시즌 타율은 0.067로 낮아졌다. 샌프란시스코는 3-5로 패했다. 3연패에 빠진 샌프란시스코는 35승 59패를 기록해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최하위에 머물렀다.
한편,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오스환(35)은 3경기 연속 마운드에 오르지 못했다.

뉴시스